

동서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험에 대한 이해: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선주(金善珠)**

전재은(田才恩)***

유은지(柳銀志)****

논문 요약

본 논문은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프로그램 중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라는 독창적인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 사업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동서대 사업단 프로그램을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형 프로그램(글로벌 LLP)으로 유형화하고, 동서대 참여 한국학생들이 글로벌 LLP의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어떠한 학습경험을 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참여한 10명의 동서대 학생에 대한 심층면접을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동서대 학생들은 한중일 3국에서 중국, 일본학생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글로벌 우정을 키우고, 갈등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갈등 속에서 다름을 인정, 배려하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서대 학생들은 한중일 3국을 순환하는 공동캠퍼스 및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3개 국어를 능숙히 활용하고, 동아시아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체적 사고'를 키우며, 한중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가는 학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동서대 학생들의 경험을 접착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동서대 사업단,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한국의 국제고등교육분야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캠퍼스 아시아, CAMPUS Asia, 국제학생이동, 국제화, 동아시아, 한중일,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형 프로그램, LLP, 접착이론

* 이 연구는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 03034565).

** 제1저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화지원팀 팀장

*** 교신저자.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학생이동(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OECD, 2015). 그 중 주목할 만한 경향 중 하나는 지역 내 국제학생이동의 증가와 이와 관련한 국가 정부 수준의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 참여 및 고등교육 협력의 활성화이다. 대표적 예로 유럽의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1987년 유럽 11개국 3,200여명의 규모로 대학생 교류를 시작하여 현재 유럽 30여 개국과 전 세계 수십 개 파트너 국가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변기용 외, 2013; European Commission, 2016). 이러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로서의 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변기용, 오민석, 2015). 아시아 지역에서도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 간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MIT (Malaysia-Indonesia-Thailand)를 통해 지역 내 학생 교류를 도모하였고, 이는 2012년 베트남이 참여하면서 AIMS(ASE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AIMS)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변기용 외, 2013). 현재 일본, 필리핀, 브루나이, 다루살렘 등 총 7개국이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고(변기용, 오민석, 2015), 한국도 2016년 하반기부터 AIMS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정부 수준에서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은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시범사업이 유일하다. 그동안 대학기관 수준의 학생 교류는 활발하였지만, 정부 수준에서 고등교육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학생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본 사업으로 진입하고, AIMS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2010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간 협력사업으로 채택되어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한중일 28개 대학이 10개 사업단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들의 합의에 근거해 진행된 동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화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3국간의 다양한 교육교류를 통해서 차세대 리더들에게 이 지역 평화공존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아시아의 발전적 미래 창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0).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사업설계 및 운영실태, 문제점, 참여성과 등에 대한 연구들도 여럿 수행되었다(변기용 외, 2013; 신현석, 김희연, 전재은, 강민수, 2015; 전재은, 변기용, 이수지, 2014; 정일환, 이영호, 김정희, 2014; Horie, 2014, 2015). 그 중에서도 한국 및 일본 연구자들에게 특히 주목을 받은 사업단은 동서대가 소속된 사업단이다. 해당 사업단의 프로그램이 한중일 3국간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라는 체계로 독창적으로 설계되었고, 한중일 참여 학생들이 다년에 걸쳐 장기간 참여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서대 사업단은 한국 동서대,

중국 광둥외어외무대, 일본 리츠메이칸대로 구성되어 있고,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일 3국 학생의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독특하고도 실험적인 모델은 국제교육 분야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창의적인 사례이다. 또 동서대 사업단은 국내에서도 지방소재 대학의 대학특성화 전략으로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2013).

이러한 동서대 사업단의 공동교육과정과 공동생활이라는 특징은 해당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living-learning program (LLP); Inkelas & Associates, 2007; Inkelas & Soldner, 2011; Inkelas, Soldner, Longerbeam, & Leonard, 2008)의 한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게 한다. 즉,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Global LLP, 이하 '글로벌 LLP')의 사례로서 동서대 사업단 참여학생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 연구에 LLP 개념을 활용하는(예를 들어, Enos, 2014; San Antonio & Ofori-Dwumfuo, 2015 등) 이론적 접목은 최근 국제교육 분야에서의 학문적 발전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국제교육 분야에서도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 참여가 당위적으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체계적 프로그램 설계와 적절한 개입이 동반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Engberg, Jourian, & Davidson, 2016; Vande Berg, Paige, & Lou, 2012). 그러나 아직 글로벌 LLP에 대한 사례연구와 실증적 연구에 대한 축적은 부족하다. 따라서 국제이동학생 프로그램으로서 공동교육과정과 공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에 대해 사례연구는 국제교육 분야의 글로벌 LLP 연구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분야의 LLP 연구 축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이 여전히 역사인식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일시적 충돌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리더 양성을 통해 한중일 관계를 변화·발전시키고자 하는 한중일 3국의 교육협력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면에서도 본 연구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 계량적 결과(예를 들면, 교류 학생 수의 증가)를 중요한 성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한 상황에서 참여 학생들의 경험을 질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정부 협력 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성과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은 2016년 상반기에 약 5년간의 시범사업 마무리와 본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인 학부 학생 대상 국제교류를 실현하고 있는 동서대 참여 학생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는 결과와 발전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단 중 하나인 '동서대-광둥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 사업단'을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글로벌 LLP)으로 유형화하고 참여학생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라는 혁신적인 국제학생이동 프

로그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대 사업단 소속의 학생이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의 참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학습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살펴볼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대 소속 한국학생들은 캠퍼스 아시아 '공동생활'을 통해 어떠한 학습경험을 하는가? 둘째, 동서대 소속 한국학생들은 캠퍼스 아시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어떠한 학습경험을 하는가?

II. 선행연구 분석

1.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이하 'LLP')이란 최근 국내 고등교육에서 주목 받고 있는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과 관련한 개념으로(변수연, 2014; 안호영, 강성배, 2015), 특정 주제 중심의 기숙사 기반 학부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Inkelas & Soldner, 2011, p.1). 미국 고등교육에서 LLP는 학부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개입의 일환으로 많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국 차원의 실증적 연구(National Study of Living-Learning Programs)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Inkelas & Associates, 2007). LLP는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리더십, 문화, 전공학문, 연구형, 기숙형, 건강증진, 여학생 중심 등으로 분류하거나(Inkelas & Associates, 2007), 프로그램 구조(규모, 비교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원 및 자원 가용 정도, 교내 학생행정·학사행정과의 연계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Inkelas et al., 2008). 세 가지 유형에는 ①소규모(50명 이하), 제한된 자원의 기숙형 생활 중심형, ②중규모(약 100명), 적절한 자원 지원(팀별 활동, 다문화 프로그램, 진로 워크숍 등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및 교내 학생행정 및 학사행정과의 연계(교수 참여 및 학사지도 포함)형, ③대규모(평균 343명), 종합적 자원 지원(학습 및 지도교수 공간, 해외교류프로그램 등 제공) 및 교내 학생행정 및 학사행정과의 협업(collaboration)이 이루어지며 주로 연구중심대학에서 운영되는 모형이 있다.

요약하자면, 첫째, LLP는 기숙사 기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둘째, 일부 LLP는 주제에 따라 학습공동체의 성격을 띠며, 셋째, 주제별 LLP는 다양하더라도 구조에 따라서는 간략히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Inkelas & Soldner, 2011). 이는 모두 미국 고등교육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결과이다.

또 이러한 LLP는 학업성취, 대학 소속감 및 만족도, 사회·심리적 발달, 교수와의 교류와 교우관계 등 다양한 성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유형에 따라서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 유형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Inkelas & Associates, 2007; Inkelas et al., 2008). 국내 고등교육에서도 LLP는 참여 학생들의 소속감, 학습 기회 참여, 공동체 기여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수연, 2014; Kang, Han, & Cho, 2014).

최근 국제교육 분야에서도 LLP 개념을 적용하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참여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프로그램 설계와 적절한 개입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Engberg, Jourian, & Davidson, 2016; Vande Berg, Paige, & Lou, 2012), 이러한 이론적 접목은 국제교육 분야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사 프로그램에 대한 LLP 연구에서는 유학생과 현지 학생 간의 공동생활,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제공, 교내 관련 부서들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기숙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 학생들의 문화 관련 발달을 조사하였다(San Antonio & Ofori-Dwumfuo, 2015). 또 유람선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LLP로 재정립하고자 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Enos, 2014). 이러한 선상(shipboard) 프로그램은 수개월 간 유람선에서 교수 및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연계 수업 제공을 제공하고, 여러 국가를 방문하며 여행 및 현장학습을 병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외에도 Inkelas와 Associates (2007)가 분류한 LLP 중 '문화 LLP'는 특정 국가나 외국어, 국제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춘 기숙형 프로그램으로 국제교육 관련 LLP를 문화 LLP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LLP는 국제교육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LLP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 간 공동 기숙사 프로그램, 해외캠퍼스 및 유람선 프로그램을 포괄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육 관련 주제의 다양한 기숙형 및 공동생활 LLP를 통틀어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이하 '글로벌 LLP'(Global living-learning program))로 명명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2.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 사업단(이하 '동서대 사업단')의 프로그램은 아래 서술된 특징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과 한중일 학생의 공동생활을 중심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LLP이자 그 중에서도 글로벌 LLP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동서대 사업단에 대한 연구는 최근 LLP 개념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실증적 연구의 축적이 부족한 국제교육 분야에 관련 사례연구를 제공하는 의의를 갖는다. 동서대 사업단과 같은 창의적인 글로벌 LLP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는 향후 관련 국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실천적 의의도 지닐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서대 사업단은 총 10개의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단 가운데 학부생을 중점 대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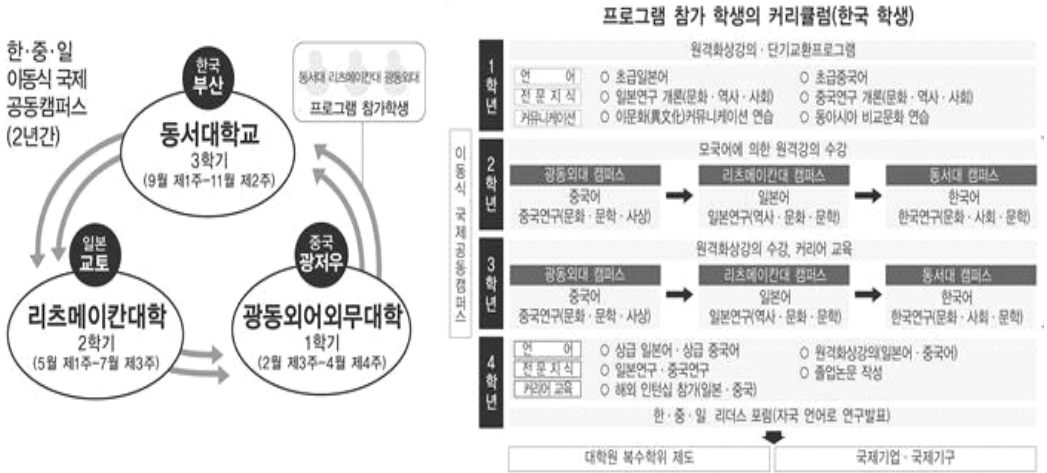
로 하는 사업단 중 하나이다. 사업단의 주제 및 명칭은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상’이며, 동서대 사업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 또는 트라이앵글 캠퍼스로 불리는 독창적 학기제 운영이다. 이는 세 대학 간 10여년 간의 단기 공동교육 및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위해 창출한 교육체제이다. 각 국에 따라 학기제가 상이하고, 대학에 따라 졸업이수 학점도 다르지만, 상호학점 인정, 공동 과목 신설,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를 운영한다(동서대, 2013). 이러한 3국간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 운영은 창의적인 글로벌 LLP 운영의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공동교육과정을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에 따라 운영한다.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은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이라는 주제에 따라 외국어, 문학,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수업을 제공한다. 이는 글로벌 LLP이면서도, LLP 주제별 유형 가운데 특정 학문 분야 또는 학문 주제에 따라 학생 집단을 구성하는 학문분야 프로그램(*disciplinary programs*) 유형,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한중일 언어를 모두 사용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적 이해도 도모하는 점에서 문화 프로그램(*cultural programs*)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Inkelas & Soldner, 2011).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동서대 사업단의 공동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1단계는 파견 전 교육(1학년), 2단계는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2-3학년), 3단계는 졸업준비과정(4학년)이다(동서대, 2013). 구체적으로, 1학년 때는 자국에서 외국어 및 문화에 대한 집중교육을 받는다. 2-3학년 때는 한중일 각 국 10명씩 총 30명의 코호트가 3국을 4개월씩 중국-일본-한국의 순서로 순환하며 교육을 받으며, 전공 교과목의 비중이 증가하고 수업도 원어로 진행된다(신현석 외, 2015). 4학년 때는 다시 자국에서 졸업준비를 하며 해외인턴십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작성한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동서대 사업단의 1기 참여학생들은 4년에 걸쳐 이러한 모든 단계를 완료하여 수료 또는 졸업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한중일 학생들의 공동생활로서, 동서대 사업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글로벌 LLP 특징 중 하나이다. 동서대 사업단 소속 학생들은 한중일 각 국가별 10명씩, 총 30명의 학생이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를 순환하며 공동생활을 한다. 일본에서는 30명의 학생들이 셰어하우스라는 두 채의 단독주택 공간에서 남녀학생들이 별도로 단체 공동생활을 한다. 한국에서는 기숙사에서 한중일 학생들이 3-4명씩 생활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학생을 제외한 한국, 일본 학생들만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한중일 학생들이 2년 동안 장기간 자국 및 해외 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이 동서대 사업단의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는 LLP 구조별 유형 가운데 소규모, 제한된 자원의 기숙형 생활 중심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Inkelas et al., 2008; Inkelas & Soldner, 2011), 동일한 한중일 학생들이 다년간 소규모 단체 생활을 한다는 점

에서 매우 독특하다.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을 포함한 다국적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공동생활하거나 기숙사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국제교육 분야에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관련 연구는 소수만을 찾아볼 수 있다(Nesdale & Todd, 2000; Salida & Grant, 1993). 예를 들어,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과 미국 학생 간 기숙사 룸메이트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이들을 위한 기숙사 내 국제 프로그램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Salida & Grant, 1993).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이나 미국 학생의 국제적 소양 함양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공동생활뿐만이 아니라 이들 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으로 호주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호주 학생이 같은 기숙사에서 살면서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를 연구한 논문을 들 수 있다(Nesdale & Todd, 2000). 이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과 호주 학생 모두 수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서로 간 교류의 양이나 문화적 이해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의 공동생활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만, 공동생활 및 교류의 의미와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학기관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1] 동서대 소속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의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 및 커리큘럼 (동서대, 2013, p.1)

3.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 접촉이론과 학생 교류

이상과 같은 동서대 사업단의 특징인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한중일 학생들의 공동생활을 고려할 때 동서대 사업단은 LLP 중에서도 글로벌 LLP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LLP 가운데서도 글로벌 LLP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글로벌 LLP의 효과도 LLP 효과와 유사할 수 있지만, LLP 주제와 교류대상이 다양한 문화를 포

함하고 해외에 위치할 수 있는 복합적 특징을 고려할 때 다른 LLP와 차별적으로 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an Antonio와 Ofori-Dwumfuo(2015)는 외국인 유학생과 미국 현지 학생 간 LLP 참여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적 역량 발달(intercultural maturity)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외 관련 연구도 LLP 개념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 간 기숙사 공동생활 또는 기숙사 프로그램 참여가 참여학생들의 적응 및 문화적 역량 발달에 효과적인 점을 보여주었다 (Nesdale & Todd, 2000; Salida & Grant, 1993). 즉, 글로벌 LLP는 일반 LLP와는 교류대상과 주제 등의 차이로 인해 그 효과가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LLP 연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LLP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LLP의 간접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Inkelas & Soldner, 2011). 즉, LLP 효과는 단순한 LLP 참여 자체가 아니라 LLP 참여로 이루어지는 교수 또는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교육 분야의 많은 선행연구도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문화적 역량 발달, 사회문화적 적응 등의 효과를 밝히고 있다(이선미, 김찬란, 2013; Barger, 2004; Geeraert, Demoulin, & Demes, 2014; Hendrickson, Rosen, & Aune, 2011; Jon, 2013; Kashima & Loh, 2006; Parsons, 2010; Rajapaksa & Dundes, 2002-2003; Smith & Khawaja, 2011; Zhang & Goodson, 2011).

따라서 글로벌 LLP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 및 국가에서 온 학생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러한 교류가 참여학생의 경험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와 교류의 의미 및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1) 접촉이론

Allport(1954)의 접촉이론(contact hypothesis; contact theory)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집단 간 접촉이 일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면 서로에 대한 편견이 감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접촉 조건은 집단 간 동등한 지위, 공동의 목적, 집단 상호 간 협력, 그리고 제도적 지원(institutional support)이다. 이러한 접촉이론은 수십 년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 및 인종 간 접촉이 긍정적,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연구하는데 활용되고, 축적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발전하였다(Pettigrew, 1998, 2008; Pettigrew & Tropp, 2000, 2005, 2006; Pettigrew, Tropp, Wagner, & Christ, 2011). 특히 Pettigrew는 접촉이론 연구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접촉이론의 타당함을 입증하고, Allport의 네 가지 접촉 조건도 집단 간 교우관계(cross-group friendship)가 포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접촉이론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 학생들 간 교류가 집단 또는 인종 간 편견 감소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량, 리더십 개발, 집단 간 갈등 감소, 직무만족의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Antonio, 2001; Nesdale & Tood, 2000; Pettigrew et al., 2011; Ramiah & Hewstone, 2013; Shook & Fazio, 2008). 이처럼 접촉이론은 서로 다른 집단 간 접촉과 교류가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접촉이론은 글로벌 LLP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의 학생 간 공동생활과 교류가 촉진되는 환경에서 학생간 교류 및 관계가 참여학생의 학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생 교류의 중요성 및 어려움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들이 서로 분리(segregation)되어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Brown, 2009; Campbell & Li, 2008; Sovic, 2009; Williams & Johnson, 2011). 외국인 유학생은 현지 학생과 교류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의 교류 형태를 보면, 주로 자국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고 다음으로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마지막으로 현지 학생과 교류하는 경향을 보인다(Furnham & Alibhai, 1985; C.R. Rose-Redwood & Rose-Redwood, 2013). 현지 학생의 입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에게 다가가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Dunne, 2009).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과 만나고 친구를 사귀기 원하지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현, 김아영, 강이화, 2007; 김선영, 2014; 김영경, 2009; 임춘희, 2009; 전재은, 장나영, 2012).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과 해당 국가 국내 학생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Glass & Westmont, 2014; Lehto, Cai, Fu, & Chen, 2014). 이러한 개입 프로그램으로서, 수업을 위한 그룹편성과 같은 수업설계 방법(Bennett, Volet, & Fozdar, 2013; Pritchard & Skinner, 2002; Rienties, Aloctt, & Jindal-Snape, 2014; Rienties & Nolan, 2014)과 버디, 멘토링, 기숙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Campbell, 2012; Leask, 2009; Nesdale & Todd, 2000; Woods, Poropat, Barker, Hills, Hibbins, & Borbasi, 2013)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한 개입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LLP에 포괄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 LLP로서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동서대 소속 사업단은 한중일 학생 30명이 코호트를 이루어 2년 이상 함께 한중일 국가에서 학습, 생활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학생 간 교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집중적 프로그램 개입의 예이며, 기숙사 기반 공동생활을 하는 글로벌 LLP의 예로 볼 수 있다. 둘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학생 간 교류가 참여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밝힌 바 있어(신현석 외, 2015), 접촉이론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서대 소속 사업단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C.R. Rose-Redwood와 Rose-Redwood(2013)가 분류한 국제학생이동에서 볼 수 있는 교류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C.R. Rose-Redwood와 Rose-Redwood는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교류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자국 학생들과만 어울리는 자진분리형(self-segregators), 자국 학생과 다른 유학생들과만 교류하는 배타적 글로벌 교류형(exclusive global mixers), 자국 학생, 다른 유학생, 그리고 현지학생과도 어울리는 포괄적 글로벌 교류형(inclusive global mixers), 그리고 주로 현지 학생과 어울리며 자국 학생도 만나지만 다른 유학생과는 만나지 않는 현지교류형(host interactors)이다. Rose-Redwood 등은 이 중 포괄적 글로벌 교류형을 이상적인 사회교류형으로 평가하였는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의미 있고 여러 문화를 아우르는 대화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서대 소속 사업단의 경우도 포괄적 글로벌 교류형과 유사하게 한중일 어느 나라를 가도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 학생,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 밀도 있는 교류를 하게 된다. 다만, 주로 교류할 학생들이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소속 학생들로 지정되어 있고, 사업단 소속 밖의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동서대 소속 사업단의 프로그램 설계는 다른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학생들 간 강도 높은 교류가 가능하게끔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동서대 소속 사업단의 학생들이 글로벌 LLP의 참여로 공동교육과정 및 공동생활을 통해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학습과 성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동서대학교 사업단 소속 한국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다. 모두 2012년에 동서대학교에 입학한 학부생으로서 남자 4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입학 당시 전공은 다양했으나 별도의 독립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특성상 2학년 때 전과를 신청하여 모두 중국어과나 일본어과에 소속되어 있다. 중국어과 전공은 일본어과를, 일본어과 전공은 중국어과를 복수전공 하도록 되어 있다. 약 절반 정도의 학생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동서대학교에 진학했고 그 외는 동서대학교에 진학한 후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문서수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에 걸쳐 총 3차례 동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였다(<표 1> 참조). 2014년 1월과 6월에 각각 한국과 일본의 소속 대학을 방문하여 10명 전원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2015년 6월 중국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귀국한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기 중에 학생들을 방문한 경우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방학 중에 면접을 진행한 경우 참여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대 학생들의 캠퍼스 아시아 참여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준구조화된 질적 연구 인터뷰 방법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준구조화된 인터뷰는 대개 연구 주제를 위해 개발된 몇 개의 핵심적인 열린 질문들로 구성된 인터뷰 가이드에 따라 진행되는 인터뷰이다(Roulston, 2010). 준구조화된 인터뷰에서 면담자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참여자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유의미한 언급이 나왔을 때 이를 깊이 있게 팔로우업하고 관련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표 1> 심층면접 정보

장소	일시	면접 형태	면접 대상자
부산(한국)	2014년 1월	집단면접	10명
교토(일본)	2014년 6월	개인면접	10명
부산(한국)	2015년 6월	개인면접	6명

본 연구에서는 준구조화 면접지를 사용하되 이전 면접 내용을 숙지하여 학생 개인별로 면접 질문을 구체화하였다. 가능한 2명 이상의 연구자가 면접에 참여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고, 1차 면접에 한해 1:2 혹은 1:3 집단면접을 실시한 경우 개별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면서 특정 학생이 이야기를 주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허락 하에 모든 면접의 내용을 녹취하였고 면접을 진행한 당일 연구진 회의를 거쳐 현장방문 및 심층면접 과정에서 느낀 감상과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 필드노트로 정리하였다. 1년 반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분석을 수행하여 면접 주제를 세부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면접에서는 참여 동기, 경험, 영향, 사업에 대한 의견,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2차 면접은 경험과 영향, 한중일 3국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3차 면접은 공동체 생활, 인턴 경험 및 진로, 동아시아 정체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면접 이외에도 연구진은 다양한 캠퍼스 아시아 관련 학술대회 및 행사에서 참여관찰을 실시하고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표 2> 참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서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업단 담당자와 참여 학생들이 수집 및 제작한 사진 및 동영상, 수업자료, 신문기사 등을 분석 자료로 참고하였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캠퍼스 아시아 참여 학생 체험수기 공모’에 당선된 동서대 학생들의 체험수기도 함께 활용하였다.

<표 2> 면접 외 자료 목록

일시	행사	자료
2013년 10월	2013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협의회(부산)	관찰기록
2014년 2월	2013 캠퍼스 아시아 성과 결과보고회(서울)	관찰기록, 체험수기집
2014년 12월	2014 캠퍼스 아시아학생워크숍&사업단협의회(부산)	관찰기록
2015년 2월	2014 캠퍼스 아시아 성과 결과보고회(서울)	관찰기록, 체험수기집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주로 심층면접 전사자료 및 연구자의 필드노트, 참여 학생 체험수기를 참고하였다. 자료 수집을 시작한 2014년 1월부터 수시로 잠정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특히 2, 3차 면접을 전후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 내용을 면접 질문지에 반영하고 면접을 통해 다시 분석 범주를 수정·보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목화 및 재범주화 작업을 반복하였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주요 주제로 부각되었던 (1) 동기 및 사전 준비 (2) 현지 경험 (3) 영향 (4) 사업 장애요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면접 전사자료와 참여 학생 체험수기를 읽고 코딩하면서 하위 범주를 구체화 하였다. 경험 부분은 현지생활·학습경험·교류 등으로, 영향(변화) 부분은 언어·한중일 국가별 인식·진로 등으로, 사업 장애요인은 사업설계·행정적 지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범주화하였고 이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였다. 이후 <표 2>의 자료와 비교·대조하여 분석 내용을 확인하고 보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 3월부터는 자료를 다시 읽으며 코딩 유목을 재범주화 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와 함께 연구자마다 자유롭게 해석 및 시사점을 기록하여 잠정적 해석 작업을 병행하였다. 본격적 해석 작업은 2015년 6월 3차 면접을 완료한 후 시작되어 논문 작성이 완료된 시점까지 지속되었으며, 연구참여자와의 검증작업(member check)도 시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공동생활 경험을 통한 학습

1) 외국인 친구에서 '친구'로 발전한 글로벌 우정

한중일 학생들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동서대 학생들이 경험한 것은 외국인 친구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친구'가 많아졌다는 점이었다. 기숙사 생활과 주택 생활을 함께 했던 동서대 학생들은 일상적인 접촉과 교류 속에서 서로 다른 점을 알아감으로써 '나와 잘 맞는' 친구를 찾고 혹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친구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만들어 간 우정은 그 동안 중국인 또는 일본인 친구, 즉 외국인 친구와의 우정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 형성된 내 또래의 친구였다. 이 '마음이 맞는 친구'로의 관점 전환은 그동안 상대국가에 가졌던 편견이나 불편한 감정들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치라는 보다 확장된 사회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기제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관점의 성장을 의미한다. 국적과 국경을 기준으로 한 일본인, 중국인이라는 타자에 대한 인식은 약 2년 동안의 공동생활을 통해 그냥 '사람'으로 이해되었으며, 국적을 염두에 둔 중국 친구, 일본 친구는 그냥 '나의 친구', '우리'의 범주로 포함되었다.

아..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역시 그냥 다 같이 사는 세계의 한 사람들이구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그래도 중국이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일본이면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똑 같은 그냥 다 각기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냥 한 사람들로 이미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중국인이다, 너는 일본인이다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방향, 생각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B1)

뭐 딱히 한국인을 사귀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언어가 다를 뿐이지 마음 맞으면 잘 지내는 거고. 제가 소극적이라 말을 못 걸면 못 만나는 거고. 약간 그런 국적끼리 뭉치는 편인 것 같아요 (E1)

국적끼리 뭉치는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다행인 거 같아요. 애들도 보면 지금 캠퍼스(캠퍼스 아시아) 애들 보면 한국 애들끼리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친한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다니는.....그게 일본이나 중국인 일 뿐이지 성격이 맞는 학생이랑 (M1)

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친구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국에 가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 애네들이 생각하는 중국, 일본 친구랑 내가 생각하는 중국, 일본 친구랑 다르게 되게 신기해요 (M2)

저는 오히려 함께 생활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제작년 1학년 8월에 처음으로 중국 일본 학생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너무 긴장되고 그랬어요. 왜냐면 외국인 친구 자체가 처음이었고 어릴 때부터 외국인 친구 하면 되게 생소하고 뭔가 신기하고 이상한 느낌이어서 실제로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되게 긴장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보니까 외국인 친구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H1)

2)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꾸는 중재자의 역할

이동 캠퍼스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공동생활은 ‘나’라는 개인 보다는 ‘한국학생’이라는 집단적 정체성 속에서의 ‘나’를 이해해 가는 과정이었다. 3국의 학생들이 모여 사는 공간에서 동서대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이라는 집단에 속한 개인의 특성과 그 집단이 지니는 문화적 특성, 생활습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중국학생들의 특성과 일본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동서대 학생들은 기존의 중국 또는 일본 학생들에 대한 막연한 친밀감이나 편견과 거부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재확인하거나 재정립하는 과정, 즉, 이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을 거쳐야 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동서대 학생들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문화에 타문화에 적응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적응이.... 지금도 아예 적응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정도 유학생할 가지고 적응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적응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편하고, 적응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H1)

캠퍼스 아시아를 하면서. 첫째는 저희가 타국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먼저 자국을 알아야 된다는 거. 외국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배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학생들한테 줘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국에 대한 이해와 공부도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H2)

성격 문제, 생활 문제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근데 한국인은 또 중간에서 또 이상하게 중국 친구하고 일본 친구하고 잘 조율하면서 잘 지내고 (B1)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나서는 편이에요 때로는. 한국인들이 중간 입장에서 될 수 있으니까, 중간 입장에서 일본 친구하고 중국 친구들을 조율하면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항상 리더라고 하면 일본, 1층에 사는 애들의 리더, 2층에 사는 애들의 리더가 있었는데 이 둘이 전부 다 일본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제도를 빼버리고 일본인 한 명, 한국인 한 명, 중국인 한 명. 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한중일 학생들이 이제 리더가 나와서 같이 토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그런 공동 리더를 만들었어요 (B1)

3)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통한 성장

공동생활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었다. 웨어하우스(공동생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생하는 갈등을 '서로 다름'으로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능력은 일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는 좀처럼 습득하기 어려운 능력이었다. 동서대 참여 학생들은 공동생활을 통해서 일본학생, 중국학생들과의 서로 다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시야와 세계관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 다름에 대한 경험은 처음에는 생소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다가왔지만 결국은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타인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는 배려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조화를 이루며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는 자양분이 되었다.

저희가 공동생활을 하고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깐 그 친해지는 깊이도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배려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야기가 되는거예요 (H2)

사실 작년에는 생활에서 어 일본은 자기들만의 기준이 되게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다른, 사회마다 당연히 사회 기준이 있고, 그 사회가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만 일본은 자기들의 룰이 되게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용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본 학생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들은, 확실히 자기들은 몰랐대요. 원래, 일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몰랐대요. 그걸 왜 그러지 외국인들 왜 그러지 이상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네들이 유학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H1)

일본에서, 그것도 웨어하우스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웨어하우스는 아예 저희가 운영하는 거니까, 청소도 저희가 해야 되고 쓰레기도 저희가 버려야 되고 저희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되게 자기들의 엄격한 기준을 되게 많이 도입해서 그걸 되게 강요했어요...한 번 순환을 하고 1년이 지나니까 저희도, 아 일본인은 이런 룰을 지키는 문화가 있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고 그거는 인정 해줘야 하니깐 우린 우리 나름대로 지키고 뭐 그래서 작년보다 외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한테 더 많이 물어요. 이런 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약간 예의 같은 것도 교수님 대하는 거나 아니면 밖에서 옷차림이나 행동 하나하나도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묻고, 또 일본 학생들도 바로바로 대답해주는데다가 그리고 혹시나 틀리더라도 작년에는 되게 엄격하게 적용한 반면 올해는 말은 해주는데, 되게, 정말 안 되는 거면 말해주는데 웬만하면 그냥 다름을 인정 하려고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H1)

친구가 편지를 써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한국친구들과 역사문제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본인이 가해자 입장이니깐 잘못하다가 한국친구에게 많은 상

처를 입히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서 꺼려했었는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깐 얘기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 이거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친구를 얻어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H2)

한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깐 변화가, 저는 3단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들은 대로. 아…… 예를 들면 중국에는 뭐 생활이 좀 그런다든지. 일본인은 정말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한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겪어보니깐 아닌 거예요. 이게 2단계였어요. 어……솔직히 말하는데? 한국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3번째 단계는 역시 차이가 있구나. 작년 생활 했을 때랑 올해 생활 했을 때랑 다른데 이게 다른 게 없다라고 동일성을 찾았다면, 올해는 차이점을……이렇게 다른 점이 보이더라고요 (H2)

네. 뭔가 거울이 있는 것처럼. 일주일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또 다른 걸 자주 느끼고 있어요 (B1)

상대를 보는 관점도 바뀌었고, 시야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인맥에 대한 중요도 바뀌었고. 또, 지극히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던 지, 하고는 싶지만 약간 꿈만 같은 일? 근데 제가 이렇게 해외를 돌게 되었잖아요. 그니깐 뭔가 앞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든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전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고 있으니깐. 앞으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음이라 던지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변화가 됐어요...어떤 일이 됐던,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꿈만 같은 일일 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게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게 고민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고 있다든지 (H2)

2. 공동캠퍼스/공동교육과정 경험을 통한 학습

1) 3개 국어(외국어) 습득에서 활용으로

동서대 참여 학생은 일본어와 중국어 능력을 활용해 문화의 이해에 대한 폭을 확장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2개 언어(일본어, 중국어)를 배우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일본과 중국에서 원어로 문화 및 문화 관련 수업을 듣는데, 이는 학생들의 노력의 결과를 테스트 하고 검증할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외국어를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4학년 때 학생들이 인턴 국가를 선택하고 직접 기업이나 업무 현장에서 그들이 배운 언어와 문화 능력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이점 중 하나였다. 학생들은 인턴 경험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배운 언어 능력을 생활에 적용하고,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제가 중국어로 되게 좋은 시를 읽었는데 제가 캠퍼스 아시아를 안 했으면 그 시를 안 읽었을 거고. 번역본을 읽는 거랑 원문을 읽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어요. 원문을 읽는게 조금 더 와 닿고 공부하는 느낌이 강해지고 하니까, 느낀 바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국의 언어로....한국 사람이 중국어나 일본어로 된 책이나 문학작품, 역사책, 철학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게 되게 좋은 일 같아요.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그런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M2)

캠퍼스 아시아 경험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캠퍼스 아시아에서 배운건 어학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캠퍼스 아시아가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걸 최대한 활용하려면 그냥 단순히 중국어를, 경영을 전공하고, 마케팅을 전공해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 중국인을 이해해야 설득이 가능하고 영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H1)

해외 영업이나 마케팅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나라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저는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업의 기본은 그 나라 사람을 잘 이해하여, 잘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4년 동안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잘 활용하고 싶어요 (M1)

2)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노력과 습관의 형성

한중일이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과 공동생활은 동서대 학생들로 하여금 한중일이 함께 엮인 역사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동서대 학생들은 관련 수업을 듣고 함께 토론하고 또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며, 왜 한중일 국민들이 영토 또는 역사문제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고민하고 학습하였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이라는 한 국가의 관점만 배웠다면, 이제는 각 국의 역사인식과 배경을 학습하고 인지하게 된 것이다. 역사 수업에서 한중일 학생들은 3국의 역사교과서를 비교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토론해보고, 또 함께 생활하는 친구로서 서로 듣고 설명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아래 동서대 학생은 본인의 '역사적 사고력이 입체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학생을 1년 반 이후에 만났을 때는 그 때 자신하였던 것보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벗어나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실 역사가 국사를 배울 때 국사는 어쩔 수 없이 왜곡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자국의 입장에서 쓰니까. 그래서 일본학생들도 국사를 배울 때 한국과 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초·중·고등학교 때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독도 문제라든지 영토문제, 역사문제가 대두될 때 마다 국민들 반응이 너무 다르니까. 그것은 역사 인식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역사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배움으로써 변하는 것 같아요 (H1)

아베 총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서 이리이러한 사건과 이리이러한 사상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구나 하는걸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무턱대고 일본을 비판하기 보다는 먼저 그 이면을 알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B2)

사실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각 국가마다 국가입장이 달라지고 교과서 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역사교육이 달라진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그거를 계속 의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캠퍼스아시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먼저 의식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얼마 전에는 그 페이스북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일본 어촌에서 돌고래 사냥을 하는데 사실 그 돌고래가 요즘 멸종 위기에 있으니깐 해양 국제기관에서는 사냥을 금지시키려고 막으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안 듣고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댓글에 아 일본을 비판하는 게 많았는데 그런거 있으면 예전에는 아무 비판의식 없이 애네 왜 이래 이러면서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을텐데 이제는 이게 옳고 그름이 정말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예전에는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한국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왜 중국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일본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H1)

3) 공동체 의식의 함양

한중일 사업단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역사, 사회 수업은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수업의 대부분이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 한중일 학생들은 일정 시간의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기존 인식을 개방하고, 서로 도전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학습 과정을 통해 자신들만의 역사 인식을 재정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토론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배운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발전하고 싶다는 공동체 의식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한중일의 갈등을 지금 바로 풀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서로 직면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성숙한 역사인식을 보여주었고, 자신들이 갈등을 풀고 조화를 이뤄갈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반사람들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제 내가 배웠던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즘 들어서 더욱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B1)

그만큼 저희는 좋은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좋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얻은 만큼

저는 그것을 이제 보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 동아시아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하나라도 만들고 싶어요 (B1)

제가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를 하면서 한중일 외교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길러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캠퍼스 아시아가 지금 당장 30명 상태로 나오면 효과가 없겠지만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계층이 많아지면 저절로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게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많이 퍼져서 언젠가는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학생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나, 한중일 관계에 관심이 많아진 학생들이 많아진대거나, 이런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M2)

캠퍼스 아시아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혜택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한중일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회 참여 부분이라든지,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게 됐어요 [...] 한국, 중국, 일본 어떤 국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관자로 있기보다는 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시민단체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H2)

4) 수업의 교실 밖 확장과 진로와의 연계

동서대 학생들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부분에 있어 ‘시야의 확장’을 꼽았다. 공동생활과 수업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배양함으로써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움은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는데, 일차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문화나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토론이 일상생활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어 및 문화이해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진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전에는 생각도 해 보지 않았지만 중국·일본에서의 진학이나 취업을 고려하게 되었다거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일본과 교류가 많은 기업으로 취직하고 싶다고 하였다.

저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이나 한국 기업 안에서 해외개발팀이라던가 글로벌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중국어를 쓰고 일본어를 쓰는 사원이 아니라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중국인을 이해하고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런 교류가 잘 될지 회사에 도움이 될지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몸소 다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H1)

옛날에는 한국만 딱 보고 한국에서 취업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 했었는데 이젠 동아시아 쪽으로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요 (B2).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었으면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길들이나 이런걸 생각 했을 텐데, 저는 이걸 해서 중국에서 공부를 해봤으니깐 중국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 같은 거를 캠퍼스 아시아 하면서 만든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 정해진 진로는 아직 없는데 이거를 말씀 드린 점은. 볼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진거죠 (M2).

이거를 배우면서 이 중국과 일본,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거에 제가 되게 흥미를 많이 느껴서 해외 출장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중국, 일본에 관련된 직종이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고 (E1)

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의 한국 학생들은 한중일간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글로벌 LLP(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학습하고 있었다. LLP는 특정 주제 중심의 기숙사 기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학습 공동체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Inkelas & Soldner, 2011). LLP의 효과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지만(변수연, 2014; Inkelas & Associates, 2007; Inkelas et al., 2008; Kang, Han, & Cho, 2014), 이를 접목한 국제교육 분야의 글로벌 LLP에 대한 사례연구와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Enos, 2014; San Antonio & Ofori-Dwumfuo, 2015).

이러한 의미에서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이라는 주제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한중일 대학생들이 공동생활(쉐어하우스 및 기숙사)을 하는 글로벌 LLP 사례로서, 다른 문화권 학생들 간의 교류와 교우관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 가운데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앞서 선행연구 분석에서 설명하였듯이, 접촉이론과 국제교육 관련 문헌은 다른 문화권 학생

들 간의 교류와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론적으로 입증하였다(이선미, 김찬란, 2013; Barger, 2004; Geeraert, Demoulin, & Demes, 2014; Hendrickson, Rosen, & Aune, 2011; Jon, 2013; Kashima & Loh, 2006; Parsons, 2010; Pettigrew, 1998; Pettigrew & Tropp, 2005; Pettigrew et al., 2011; Rajapaksa & Dundes, 2002-2003; Smith & Khawaja, 2011; Zhang & Goodson, 2011).

본 연구에서 동서대 한국 학생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즉, 글로벌 LLP 참여 경험과 학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학생들은 공동생활 즉, 일상생활(everyday life)에서 이문화에 대한 노출과 적응 과정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학습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둘째, 한국 학생들은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학생들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복잡한 3국의 외교문제를 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는 리더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었다. 셋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즉 한중일 3국이 기획한 다양한 공동 수업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가고 있었고, 그들이 배운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성숙한 태도를 함양하고 있었다. 특히 공동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3국에 대한 심도 있는 역사와 문화 이해 수업과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관점과 역사관을 다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학생들 스스로 본인이 ‘입체적 사고’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참여 학생들은 그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서대 학생들의 성장은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면서도 더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초반 연구(전재은, 변기용, 이수지, 2014)에서 한국 참여학생들이 중국 또는 일본에 대한 인식변화와 모국인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이고,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잠재적 소양의 습득”(p.118)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되겠다는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학문적 관점을 확장하여 특히 대학원생은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논문을 발전시키는 등, 학문 추구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 이해함으로써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관련 전문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 초반 논문에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사업단의 한국 학생들이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서대 사업단의 프로그램 운영방식, 내용, 성격이 다른 사업단과 비교하여 독창적이어서, 참여 학생들의 경험도 다를 수 있고 이를 별도로 살펴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p.114). 본 연구결과, 동서대 학생들은 장기간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의 함양, 중재자로서의 역할, 입체적 역사관의 형성,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 숙달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른 캠퍼스 아시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및 학생 간 교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신현석 외, 2015). 한국 참여학생들은 교육과정이 소속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및 해당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수록, 다양한 참여성과(문화적 능력, 중국·일본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동아시아 정체성, 진로 계획 등)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적 부합성은 특히 동서대 사업단이 총 10개 사업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논문에서는 한국학생이 중국 또는 일본에서 현지학생이나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 교류하는 정도도 참여성과와 긍정적 관계를 갖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번 동서대 사업단에 대한 연구에서도 학생 간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동서대 소속의 일부 학생들은 4년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긍정적인 학습 경험 외에도 '일반 학생들과의 교류 부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할 기회 감소', '진로(군입대)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 놓기도 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예를 들면, 학비면제, 장학금, 외국생활 경험, 중국과 일본에서의 학습 경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소위 일반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경험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1기로서 이 사업이 지속되어서 본인들이 경험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캠퍼스 아시아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동아시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동시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은 1기로서의 막연한 두려움,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향후 장기간의 발전을 통해 한중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동서대 사업단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글로벌 LLP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LLP는 학업성취, 학습 기회 참여, 공동체 기여, 대학 소속감 및 만족도, 사회·심리적 발달, 교수와의 교류와 교우관계(변수연, 2014; Inkelas & Associates, 2007; Inkelas et al., 2008; Kang, Han, & Cho, 2014),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및 역량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n Antonio & Ofori-Dwumfuo, 2015).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LLP의 효과로 교우관계, 공동체 의식,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및 역량 발달뿐만 아니라 문화 갈등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 외국어 습득, 역사관 형성, 그리고 진로관도 볼 수 있었다. 둘째, 접촉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문화권 학생들이 교우관계를 통해 편견의 감소와 문화적 발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과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학생들의 중국 및 일본 학생과의 경험은 직접 경험한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로까지 확장하는 변화를 보여 접촉이론에서 접촉효과가 직접 관계된 집단뿐만 아니라 전체 집단과 다른 상황, 그리고 직접 접촉하지 않은 집단까지 전해지는 일반화 현상도 보여주었다(Pettigrew, 1998; Pettigrew et al., 2011).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의 참여 학생들은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한중일의 이질성을 경험하면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고, 나아가 협력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아시아'로서의 지역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다(황정미, 2015). 이러한 학생 개인의 변화와 성장 외에도 정책적 차원에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실험적인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꾸준한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동서대 사업단에 제안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인문학 리더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인문학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문에 접할 기회와 일반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대학활동-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비인문학 과목의 수강 기회-등을 제공하여 참여 학생들이 언어적·문화적 연대감 외에 자신들의 흥미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 후 본인들의 진로와 취업, 군 입대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3개국 언어와 문화 혹은 문학에 관한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외에 4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가 학생들의 미래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중간에 진로와 취업에 관한 정보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노력과 경험들이 진로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상설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단과 참여 학생들의 노하우가 다음 기수로 잘 전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본인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면서 선배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본인들이 1기로서 후배들에게 실수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즉,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원했다. 한중일 정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여 프로그램 상설화를 추진함으로써 동서대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동아시아 인재와 리더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동서대 사업단의 한국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한중일 공동 연구진이 참여하는 한중일 3국 학생 대상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차원의 학생 참여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대현, 김아영, 강이화(2007).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3), 159-187.
- 김선영(2014). 중국 유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학업수행 측면에서의 문화적응과 만족도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2(1), 131-157.
- 김영경(2009). 중국 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10(1), 535-559.
- 교육부(2010). **한중일 공동 합의문**. 서울: 교육부.
-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1차 모니터링 평가 결과 보고서**.
- 동서대 CAMPUS Asia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2013). **동서대 CAMPUS Asia 사업단 자체평가 보고서**. 부산: 동서대학교.
- 변기용, 오민석(2015). **한국의 AIMS 프로그램 참여 타당성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변기용, 전재은, 최상덕, 문우식, 김상률, 김진형(2013).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확대 및 정교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변수연(2014). 기숙형 대학 프로그램의 방법과 효과 탐색: 한 지방 사립대의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26(4), 741-770.
- 신현석, 김희연, 전재은, 강민수(2015). CAMPUS Asia 사업의 참여성과 분석: 교육과정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5(4).
- 안호영, 강성배(2015). 정주대학(RC) 구축과정에 대한 현황과 전망: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9(2), 181-205.
- 이선미, 김찬란(2013). 단기 해외 체험에서 프로그램 구성 요인이 문화감 감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7(5), 523-556.
- 임춘희(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전재은, 변기용, 이수지(2014). 참여학생의 입장에서 본 CAMPUS Asia 사업의 효과와 장애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2), 108-136.
- 전재은, 장나영(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18(1), 303-326.

- 정일환, 이영호, 김정희(2014). CAMPUS Asia 사업의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1(1), 101-125.
- 황정미(2015). 동북아시아 유학생의 상호인식: 사회적 거리감과 국가 정체성. *담론*, 18(4), 95-125.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Antonio, A. L. (2001). The role of interracial interaction in the development of leadership skills and cultur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2(5), 593-617.
- Barger, S. S. (2004).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tudents on domestic students in 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Bennett, R. J., Volet, S. E., & Fozdar, E. F. (2013). "I'd say it's kind of unique in a way": The development of an intercultural student relationship.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7(5), 533-553.
- Brown, L. (2009). A failure of communication on the cross-cultural campu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4), 439-454.
- Campbell, N. (2012). Promoting intercultural contact on campus: A project to connect and engage international and host student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6(3), 205-227.
- Campbell, J., & Li, M. (2008). Asian students' voices: An empirical study of Asian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at a New Zealand University.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4), 375-396.
- Dunne, C. (2009). Host students' perspectives of intercultural contact in an Irish University.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2), 222-239.
- Engberg, M. E., Jourian, T., J., & Davidson, L. M. (2016). The mediating role of intercultural wonderment: Connecting programmatic components to global outcomes in study abroad. *Higher Education*, 71(1), 21-37.
- Enos, K. W. (2014). *Reframing SEA semester: A model living and learning program in education abroad*. Capstone Collection, Paper 2678. SIT Graduate Institute.
- European Commission. (2016). *Erasmus + programme guide*. Retrieved from http://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documents/erasmus-plus-programme-guide_en.pdf
- Furnham, A., & Alibhai, N. (1985). The friendship networks of foreign students: A replication

- and extension of the function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0, 709-722.
- Geeraert, N., Demoulin, S., & Demes, K. A. (2014). Choose your (international) contacts wisely: A multilevel analysis on the impact of intergroup contact while living abroad.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8, 86-96.
- Glass, C. R. & Westmont, C, M. (2014). Comparative effects of belongingness on the academic success and cross-cultural interac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8, 106-119.
- Hendrickson, B., Rosen, D., & Aune, R. K. (2011). An analysis of friendship networks, social connectedness, homesickness, and satisfaction level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3), 281-295.
- Horie, M. (2014). Internationalization of Japanese universities: Learning from the CAMPUS Asia experience.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78, 19-21.
- Horie, M. (2015). *Internationalization of Japanese higher education: Students' and institutional learning from CAMPUS Asia experience* 2014 캠퍼스 아시아 성과 결과보고회, 서울.
- Inkelas, K. K., & Associates (2007). *National study of living-learning programs: 2007 report of findings*. College Park, MD: Authors.
- Inkelas, K. K., & Soldner, M. (2011). Undergraduate living-learning programs and student outcomes. In J. C. Smart & M. B. Paulsen (Eds.),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vol. 26) (pp.1-55). New York: Springer.
- Inkelas, K. K., Soldner, M., Longerbeam, S. D., & Leonard, J. B. (2008). Differences in student outcomes by types of living-learning programs: The development of an empirical typolog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9, 495-512.
- Jon, J.-E. (2013). Realizing Internationalization at Home in Korean higher education: Promoting domestic students' interaction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7(4), 455-470.
- Kang, S. Y., Han, S. H., & Cho, H. H. (2014). The educational effects of residential college program in Yonsei engineering colleg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7(5), 3-7.
- Kashima, E. S., & Loh, E. (2006).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Effects of international, conational, and local ties and need for clo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4), 471-485.
- Leask, B. (2009). Using formal and informal curricula to improve interactions between home and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2), 205-221.

- Lehto, X.Y., Cai, L.P., Fu, X., & Chen, Y. (2014). Intercultural interactions outside the classroom: Narratives on a US campu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5*(8), 837-853.
-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ag-2015-en>
- Nesdale, D., & Todd, P. (2000). Effect of contact on intercultural acceptance: a fiel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3), 341-360.
- Parsons, R. L. (2010). The effects of an internationalized university experience on domestic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4*(4), 313-334.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65-85.
- Pettigrew, T. F. (2008). Future directions for intergroup contact theory an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2*, 187-199.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0). Does intergroup contact reduce prejudice? Recent meta-analytic findings. In S. Oskamp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 93-114). Mahwah, NJ: Lawrence Erlbaum.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5). Allport's intergroup contact hypothesis: Its history and influence. In P. G. John F. Dovidio, & Laurie A. Rudman (Ed.), *On the nature of prejudice: fifty years after Allport* (pp. 262-277). Malden, MA: Blackwell.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ettigrew, T. F., Tropp, L. R., Wagner, U., & Chirst, O. (2011). Recent advances in intergroup contac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271-280.
- Pritchard, R. M., & Skinner, B. (2002). Cross-cultural partnerships between home and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6*(4), 323-353.
- San Antonio, L. M., & Ofori-Dwumfuo, C. (2015). Understanding communication dynamics amo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udents: A case study of a global living-learning community. *The Journal of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Housing, 42*(1), 128-143.
- Shook, N. J., & Fazio, R. H. (2008). Interracial roommate relationships: An experimental field test of the contact hypothesis. *Psychological Science, 19*(7), 717-723.
- Rajapaksa, S., & Dundes, L. (2002-2003). It's a long way home: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to living in the United States. *College Student Retention, 4*(1), 15-28.
- Ramiah, A. A., & Hewstone, H. (2013). Intergroup contact as a tool for reducing, resolving,

- and preventing intergroup conflict: Evidence, limitations, and potential. *American Psychologist*, 68(7), 527-542.
- Rienties, B., Aloctt, P. & Jindal-Snape, D. (2014). To let students self-select or not: That is the question for teachers of culturally diverse group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8(1), 64-83.
- Rienties, B. & Nolan, E.-M. (2014). Understanding friendship and learning networks of international and host students using longitudinal Social Network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1, 165-180.
- Rose-Redwood, C. R., & Rose-Redwood, R. S. (2013). Self-segregation or global mixing? Social interactions and the international student experienc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4(4), 413-429.
- Roulston, K. (2010). *Reflective interviewing: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Los Angeles, CA: SAGE.
- Salida, D. D., & Grant, S. (1993). Roommate understanding and rapport between international and American roomma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335-340.
- Smith, R. A. & Khawaja, N. G. (2011). A review of the acculturation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699-713.
- Sovic, S. (2009). Hi-bye friends and the herd instinct: International and home students in the creative arts. *Higher Education*, 58, 747-761.
- Vande Berg, M., Paige, R. M., & Lou, K. H. (2012). *Student learning abroad: What our students are learning, what they're not, and what we can do about it*. Sterling, VA: Stylus.
- Williams, C. T., & Johnson, L. R. (2011). Why can't we be friends?: Multicultural attitudes and friendship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41-48.
- Woods, P., Poropat, A., Barker, M., Hills, R., Hibbins, R., & Borbasi, S. (2013). Building friendship through a cross-cultural mentoring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 523-535.
- Zhang, J., & Goodson, P. (2011). Predictors of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social adjustment to life in the United Stat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139-162.

* 논문접수 2016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3월 11일 / 2차 심사 2016년 5월 17일 / 게재승인 2016년 6월 3일

* 김선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 평생교육/HRD 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국제화지원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sjkim24316@gmail.com

* 전재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교육정책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aejon@semyung.ac.kr

* 유은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세부 전공은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이다.

* E-mail: eunjyouuu@gmail.com

Abstract

Understanding Student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the Dongseo University CAMPUS Asia Program: Living Together and Learning the Common Curriculum Together*

Kim, Seon-Joo**

Jon, Jae-Eun***

You, Eunji****

This study researched one of the 10 consortia from the CAMPUS Asia(CA) project, the Dongseo University(Korea)-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China)- Ritsumeikan University(Japan) consortium. This consortium introduced the innovative 'international mobility campus' among three countries. Categorizing this Dongseo University program as an example of the global living-learning program(LL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Korean students from Dongseo University participating in the CA program learn from living together and learning together the common curriculum with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Qualitative methodology was used,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with 10 Dongseo University participating students. Findings showed that these Korean students developed global friendship, played the role of mediator for conflict, and grew to accept and consider differences amid conflict from living together with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the same consortium. Findings also showed that Dongseo University students learned to utilize three Asian languages fluently, develop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toward history among three East Asian countries, and form the East Asian community perception from studying on the international mobility campus and learning the common curriculum. Applying contact theory to explain aforementioned participants' experiences, implications for the Dongseo University consortium, CA project, and the role of Korea i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CAMPUS Asia, international exchange,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East Asia, Korea-Japan-China, global living-learning program, contact hypothesis/theor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2S1A5A2A03034565).

** First author,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Semyung University

**** M.A. student, Korea University